# “미래의 ‘녹색’ 위해 숲 줄이는 제주의 역설”

## 제주비엔날레 국제 심포지엄 ‘풍력발전기의 물질성’ 등 익숙한 발전 문법 재검토

## 대안적 제주 미래 상상 속 폐허·동굴·무덤 ‘삼다’ 제시



지난달 31일 제주도립미술관 강당에서 열린 제주비엔날레 국제 심포지엄 ‘현장에서 새로운 실천을 찾기:기술’ 세션 발표 후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진선희기자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공간에 서식하는 동물, 식물의 소멸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말머리에 반드시 붙이는 말이 있다. 그건 ‘물론 저희도 풍력발전에 동의하지만…’이다. 물론 나도 풍력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기후 위기와 탄소 감축 담론이 곶자왈 숲 공간을 뒤바꾸어 놓고 있다. 곶자왈 숲을 마치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거대한 기후 담론을 명목으로 재생 에너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당위로 바라보기도 한다.”

지난달 31일 제주도립미술관 강당. 2026 제5회 제주비엔날레 국제 심포지엄의 ‘현장에서 새로운 실천을 찾기:기술’ 세션 발표자로 나선 조승희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는 1인칭 시점으로 작성한 발표문 ‘바람과 미래: 제주 풍력발전기의 물질성’을 읽어 내려갔다. 제주가 어떤 방식으로 풍력발전을 확산시키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주를 연구하기로 마음먹고 이 섬에 둥지를 틀었다는 그였다.

이날 조 연구교수는 제주의 ‘좋은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할 땅밑이 주로 현무암이라는 점을 짚었다. 현무암은 풍력발전기처럼 키가 크고 무거운 설비를 지탱하지 못하는 탓에 그것들을 세우려면 그 아래 화강암층이 보일 때까지 모두 파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무암을 파낸 땅은 시멘트로 메워지는데 그 양이 육상 풍력발전기 한 기당 수백 톤 규모라고 했다.

그는 “제주의 돌이 소멸하고, 수천, 수만 톤의 시멘트로 대체되는 과정을 목격한 다음에 바라보는 제주의 탄소 없는 미래는 차가워 보였다”며 “미래를 더 ‘녹색’으로 만들기 위해 제주의 숲을 줄이는 과정이 동반”되는 제주의 모습이 역설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모습을 위에서 한눈에 내려다보는 정책 입안자의 시선은, 제주의 땅 위에 발을 디디고 돌과 바람을 만져본 사람의 경험, 기대와 어긋나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새로운 실천을 찾기:기술’ 세션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자연관과 발전의 문법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감각을 요청하는 연구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전원근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다른 ‘삼다도’들: 포스트 인류세를 상상하는 방법론’ 발표에서 대안적 미래를 이야기했다.

‘청정제주’를 예로 들며 “우리가 당연하게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표어라도 그것은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혐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전 교수는 “제주를 다시 정의하는 삼다의 키워드로 폐허, 동굴, 무덤을 제시하고 이것들이 보여주는 행위성을 교란, 감염, 배회로 의미화했다. 전 교수는 “폐허와 동굴, 그리고 무덤들은 위에서 정해준 ‘좋은’ 표어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개발을 방해하는 정치적 행위자다. 또한 자원이 될 수 없거나 자원이 되기를 거부하는 행위자이며, 미래성을 괴이함과 낯섦, 어두운 본질과 함께 구성하도록 하는 새로운 미학을 요청하는 행위자이다”라고 했다.

한편 이번 제주비엔날레 심포지엄은 ‘방법으로서의 로컬’을 주제로 열렸다. 로컬을 물질, 생명, 기술(예술)이 서로 맞물려 작동하며 끊임없이 재조직되고 재구성되는 환경으로 바라보고 인간, 자연, 기술이 함께 구성하는 공통 세계에서 펼쳐질 새로운 가능성 탐색과 이를 위한 실천과 방법을 모색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AI 영상 더해 ‘하모니즘’으로 안내

## 제주현대미술관 김흥수전 ‘미의 심판’ 일반에 첫 공개



사실과 추상이라는 서로 다른 조형언어를 한 화면에 펼치는 ‘하모니즘’ 화가 김흥수(1919~2014) 상설전시실을 두고 있는 제주현대미술관이 김 화백의 예술 세계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조명한다. 이달 6일부터 펼치는 ‘김흥수: 하모니즘의 이름으로’전이다.

이번 전시에는 올해 김 화백의 유족이 미술관에 기탁한 ‘미의 심판’(1997)을 공개한다. ‘미의 심판’은 완성까지 2년 6개월이 걸린 작품이다. 인간의 감정, 창조의 근원을 상징하는 김 화백의 누드 표현과 하모니즘 양식이 집약된 대표작으로 꼽힌다.

이 전시에 맞춰 AI 영상 ‘하모니즘, 하나의 세계를 그리다’(사진)도 선보인다. 약 20분 분량의 영상은 일본·프랑스·미국 시기, 하모니즘 선언, 제주현대미술관 작품 기증으로 구성했다. 전시는 내년 2월 14일까지. 진선희기자

## 현실과 꿈 사이 어딘가 이율권 개인전 ‘좁은 방’

이율권 작가가 현실과 꿈 어딘가에서 길어 올린 모습 등으로 회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한라일보 1층에 자리한 이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좁은 방’이란 이름의 개인전이다.

출품작은 약 30점으로 4개 시리즈로 나눠 걸었다. ‘좁은 방’ 시리즈에서는 심리적 고립의 파편과 균열의 기억을 꺼냈다. ‘LEE의 기억’ 시리즈는 방 안에서의 상념이 이어지는 내면의 기록이다. ‘오상아(吾喪我)’ 시리즈는 집착과 가짜 자아를 지워내기 위해 인물의 얼굴을 비우고 손끝의 정직함에 집중하는 깨달음의 시선을 담고 있다. ‘L-CORE: JEJU’ 시리즈에선 바다에 잠긴 길 등 비현실적인 제주의 대지를 그렸다.


이율권의 ‘감귤 농장에서’.

작가는 “좁은 방에서도 창을 통해 떠오르는 해를 꿈꾸며, 계속해서 나만의 세계를 그려 나간다”고 했다. 전시는 이달 4일까지. 진선희기자

**영화觀** 실낙원

# 무너진 자리에서


영화 ‘실낙원’.

나의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가까운 존재의 죽음이다. 내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나도 소멸되기에 남겨지는 두려움은 내 몫이 아니다. 하지만 가까운 이들이 나를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은 상실과 애도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 그쪽이 훨씬 더 두렵다. 사랑했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일은 감정의 전부를 써도 모자라는 불가능의 시도이며 삶과 죽음이라는 분명한 선 앞에서 좌절로 인식되는 실패의 반복이다. 인생에서 그 순간들과 만나는 것은 무용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겪어야 할 슬픔과 고통의 매일이 망각되는 일 까지를 견뎌야 하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렵고 두렵고 자신이 없다.

연상호 감독의 영화 ‘실낙원’은 캠핑버스 사고로 어린 아들을 잃은 엄마 류소영(김현주)이 겪는 상실과 애도의 이야기다. 그러나 소영의 상실은 기술의 발전으로 다른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낙원이 아이들’이라는 AI프로그램 덕에 복제한 아들 선우를 매일 만나게 된 것이다. 만질 수는 없지만 눈앞에 존재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고 당시의 나이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선우와 소영은 9년 동안 한 집에서 함께 지낸다. 둘의 시간이 멈춘 채로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선우(배현성)가 소영 앞에 나타난다. 소영의 아들임이 분명하지만 다시 나타난 진짜 선우는 소영에게 낯설고 두려운 존재이기만 하다. 그리고 AI선우와 진짜 선우 그리고 소영의 불편하고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다.

‘실낙원’은 무수한 질문으로 가득 채워진 영화다. 기술은 사별한 존재를 대체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대체의 기간은 얼마나 유효한가? 극의 초반 소영을 위로하는 AI 선우를 보며 관객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 끔찍한 사고로 인해 삶의 전부가 망가져 버린 한 인간에게 기술은 적절한 위로의 방법론을 제시하며 그 덕에 한 인간의 삶은 회복이라는 방향에 다가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삶의 어떤 부분이 변화하지 않은 채로 멈춰서게 된다. 상실이라는 사실은 희미해지며 애도라는 과정은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 선우의 죽음은 그렇게 소영에게 없었던 일이 된다. 분명히 있었던 일을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 기술이 선물한 그 해결책은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한 인간을 무너진 채 서 있게 만든다.

진짜 선우가 소영 앞에 나타난 뒤에는 질문들이 생겨난다. 사랑하는 아들이 범죄자라면 사랑은 유효할 수 있는가? 상처와 분노로 얼룩진 진짜와 흠과 오류 없이 무결한 가짜 중에 누구를 진짜로 인식해야 할까? 상황에 맞닥뜨린 소영의 선택이 ‘실낙원’의 후반부를 이끈다. 잃어버린 낙원에서 되찾은 낙원으로 그리고 낙원의 실체와 낙원 밖의 현실로 이어지는 참담함과 쓰라림이 죽음이라는 이별을 앞둔 AI 시대의 관객들에게 또 다른 질문들을 남긴다. 낙원을 잊는 일과 잃는 일에서는 쉬운 선택도 빠른 해결도 영원한 치유도 존재할 리 만무하다. 무릇 사랑이 만든 일의 실체가 그렇기 마련이다.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진 축 CONGRATULATIONS 급



군법무관 대령

명예로운 군법무관 대령 진급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여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성공을 기원합니다.

고 윤 혁

사랑하는 가족과 친족 일동
부 : 고인환 · 모 : 강희옥
아내 : 박향정 매 : 고윤실, 이태형 제 : 고윤용, 홍정혜

취 축 CONGRATULATIONS 임

JDC 부이사장



박 원 철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랑스러운 동문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더 큰 도약과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금악초등학교 총동창회
회 장 김 충 희 외 회원 일동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제주의 대표신문 ihalla.com
한라일보 가
大勢 대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GD마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28·구독 750-2314·서귀지사 732-5552